

OH1

도심 가로변 상업 종사자의 가로 녹화에 대한 의식조사

김범수* · 박율진¹

건국대학교 산림과학과 · ¹의산대학 녹지조경학과

1. 서 론

도시는 인구의 과밀화나 대기오염 및 소음 등 인간의 쾌적한 활동에 지장을 주는 많은 환경악화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현재까지 이러한 요소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도시 공원 녹지의 조성이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도시에 있어서 도시공원녹지의 조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한 연구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이 가로수이다. 가로수는 도시의 골격을 이루는 선형 요소인 도로와 함께 조성되는 선형녹지로서 보행자와 도로변 건물과 시설물 그리고 건물에서 생활하는 활동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까지 가로수는 주로 도로 경관 형성과 보행공간으로서 물리적 환경 개선의 대상으로 여겨져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보고 되고 있으나, 도로변 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심 도로변 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중 도시의 중요한 녹지 골격을 형성하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존재효과를 분석하여 의식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도시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차량중심의 도로변 상가와 보행자 중심의 상가를 구분하여 각각의 상가와 관련된 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교 평가 하였다.

대상지는 충주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차도변(제 1·2로타리)과 보행자 중심의 보차흔용의 도로변(현대타운) 상가이며, 두 장소 모두 60명의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포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지의 녹화 상황은 차도변 상가는 편도 2차선으로 플라타너스 단일 식재이고, 보도변 상가의 경우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폭원은 차량이 왕복 가능한 정도의 좁은 도로 폭원을 하고 있다. 차도변 상가의 가로수 관리 상태는 과도한 강전정으로 인해 녹지 량이 매우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도 폭원은 4m로 좁은 상황이어서 이용 혼잡도도 매우 높은 구간 중 하나이다.

보도변 상가의 경우는 도심 식당, 상점, 영화관 등의 소비 및 문화시설 이용자와의 통행량이 많고, 일부 지점에 벤치 등의 휴식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의 폭원은 약 4~5m 정도로 차량 두 대가 교차 서행이 가능한 정도이다.

응답자의 속성은 남녀의 비율은 39.6% : 60.4%로 구성되어 20대에서 40대의 응답자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 집계는 각 대상지에 대한 항목별 구성비를 구하여 분석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가로수가 도심 및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으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보행환경에 가로수가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5.0%에 지나지 않아 가로수가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표 1. 가로수가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항목	제1·2로터리		현대타운		계	
	N	%	N	%	N	%
좋다	17	28.3	27	45.0	44	36.7
보통이다	29	48.3	22	36.7	51	42.5
나쁘다	9	15.0	9	15.0	18	15.0
모르겠음	5	8.3	2	3.3	7	5.8
합 계	60	100	60	100	120	100

도시 가로수가 도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42.5% 정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불과 2.5%에 지나지 않았다(표2).

그러나 차도주변의 상가 주민은 불과 28.3%로 매우 낮은데 이는 가로수의 과도한 전정에 따른 녹량의 확보 정도가 낮은 것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가로수가 도심환경에 미치는 영향

항목	제1·2로터리		현대타운		계	
	N	%	N	%	N	%
좋다	17	28.3	34	56.7	51	42.5
보통이다	33	55.0	23	38.3	56	46.7
나쁘다	4	6.7	1	1.7	5	4.2
모르겠음	6	10.0	2	3.3	8	6.7
합 계	60	100	60	100	120	100

2) 가로수의 존재효과

전체적으로는 75.8%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룹간의 차이를 보면 보도변 상가 주민이 차도변의 상가주민에 비해 가로수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3. 가로수 존재에 대한 인식

항목	제1·2로터리		현대타운		계	
	N	%	N	%	N	%
필요하다	44	73.3	47	78.3	91	75.8
보통이다	12	20.0	10	16.7	22	18.3
필요하지 않다	2	3.3	3	5.0	5	4.2
모르겠음	2	3.4	-	-	2	1.6
합계	60	100	60	100	120	100

다음으로 이러한 존재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로변 녹지의 존재 효과에 대해 의식조사를 행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정화와 녹음을 통한 기상완화, 다양하고 풍요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이 공원녹지의 가장 높은 존재 효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각 조사구간의 평가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4).

표 4. 가로녹지의 존재효과(복수응답)

항목	제1·2로터리		현대타운		합계	
	N	%	N	%	N	%
대기오염물질의 정화	32	22.9	32	21.2	64	22.0
기온의 조절	3	2.1	8	5.3	11	3.8
풍향의 조절	0	0	1	0.7	1	0.3
소음감소	5	3.6	3	2.0	8	2.7
지역을 아름답게 꾸며줌	21	15.0	29	19.2	50	17.2
생물의 통로	1	0.7	2	1.3	3	1.0
녹음을 제공	13	9.3	18	11.9	31	10.7
습도조절	4	2.9	3	2.0	7	2.4
계절의 변화를 느낌	11	7.9	16	10.6	27	9.3
휴식장소	17	12.1	7	4.6	24	8.2
지역의 상징성 장소	3	2.1	6	4.0	9	3.1
도시의 삭막함을 줄여줌	26	18.6	23	15.2	49	16.8
교통사고방지 및 조절	4	2.9	3	2.0	7	2.4
합계	140	100	151	100	291	100

3) 가로수에 대한 불만사항

쓰레기투기가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휴식장소 미비, 관리부족, 꽃나무와 화초가 적고, 해충의 발생 우려 등이 불만사항으로 나타나 상가 앞의 청결과 관리

그리고 미화에 대한 사항이 불만스러운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공간을 단순한 보행 공간으로서 보다는 휴식 등을 겸하는 서비스 공간으로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만족 사항은 앞의 존재효과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가주민 중에서 입지환경의 차이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면 두 조사구의 응답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 보도중심 상가의 경우 낙엽과 해충 등의 청소 및 위생부분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보차 혼용의 단차구분이 없는 도로의 구조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한 주변의 서비스 시설 유무의 차이가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가주민에 있어서 가로수에 의한 영업지장에 대한 불만은 불과 3.8%에 지나지 않았다(표5).

표 5. 가로수에 대한 불만사항

항목	제 1·2로터리		현대타운		계	
	N	%	N	%	N	%
휴식장소 미비	18	14.4	13	9.6	31	11.9
쓰레기 투기	29	23.2	25	18.4	54	20.7
해충의 발생 증가	10	8.0	16	11.8	26	10.0
낙엽으로 지저분함	6	4.8	13	9.6	19	7.3
시야를 가려 영업지장	4	3.2	6	4.4	10	3.8
나무종류가 단순	10	8.0	15	11.0	25	9.6
녹량이 적음	6	4.8	8	5.9	14	5.4
꽃나무와 화초가 적음	13	10.4	15	11.0	28	10.7
관리가 안 됨	16	12.8	15	11.0	31	11.9
조명시설 미비	6	4.8	7	5.1	13	5.0
주차 공간 부족	4	3.2	2	1.5	6	2.3
시끄러움	0	0	1	0.7	1	0.4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3	2.4	0	0	3	1.1
합 계	125	100	136	100	261	100

4) 가로녹화 요망사항

가로변 녹지에 대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 도로의 입지에 관계없이 휴식시설, 화장실, 쓰레기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도변 상가의 경우는 주차장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상대적으로 보도변 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표 6. 가로변 녹화에 대한 요망 (복수응답)

항목	제1·2 로터리		현대타운		합계	
	N	%	N	%	N	%
휴식시설	25	20.1	27	20.8	52	20.5
주차공간	15	12.1	7	5.4	22	8.7
화장실	25	20.2	11	8.5	36	14.2
음수대	6	4.8	6	4.6	12	4.7
쓰레기통	23	18.5	22	16.9	45	17.7
수목(녹량)의 증식	3	2.4	12	9.2	15	5.9
꽃나무·화초의 증식	5	4.0	8	6.2	13	5.1
나무·화초관리	5	4.0	9	6.9	14	5.5
해충구제·방제	4	3.2	11	8.5	15	5.9
청소	7	5.6	12	9.2	19	7.5
다양한 나무종류 식재	6	4.8	5	3.8	11	4.3
합계	124	100	130	100	254	100

4. 결 론

이상으로 살펴 본 결과 가로녹지 공간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을 단순 식재 공간에서 보행자와 주민에게 편의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변의 편의시설은 물론 보다 다양한 수종과 수목/화초류의 식재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일단 조성된 가로수는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편도 2차선 정도의 보도 중심의 이면도로의 경우 주민들이 화목이나 화초를 식재 하여 가로수/녹지를 관리 조성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식재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주민을 통한 가로수/녹지의 관리 방법의 하나로 제시 하고자 한다. 반면 4차선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은 도로변의 주민들의 공간이자 공공성이 강한 가로수/녹지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관련 기관의 유지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현진, “도시가로공간의 구성요소가 경관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3
- 임승빈, 1983, 경관 설계를 위한 시각적 질의 계량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1(2) pp. 183-192.
- 이강석, 도시녹지의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최기만 외.1995. 컴퓨터를 이용한 가시권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1995년도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

- 下村泰顔・増田昇・山本聰・安部大就・田村省二. 1992. フォトモンタージュ法を用いた道路修景・綠化手法に関する研究. 55(5) : 289-294
- 齊藤馨・熊谷洋一. 1988. カラーコンピュータグラフィックス(CCG)による景観豫測手法の開発に関する研究. 造園雑誌 51(5) : 257-262
- Koffka, K. 1935,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New York, Harcourt-Brace.
- Roger M. Downs & David Stea, 1973, Image and environment, Aldin Publishing Co.
- Proshansky, H. M., Ittelson, W., and Revlin, L. G., eds., 1970,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